

### 서호인의 '소설처럼'



## 내일을 생각하며

- 나현정 그림책 '하루살이가 만난 내일'

12월 31일 밤이 다른 날 밤과 다른 게 있다면 단 하나, 카운트다운을 센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 멀리에 로켓이라도 쏘아 올리는 양, 대통령 선거 출구 발표라도 하는 듯이, 텔레비전이든 휴대전화든 전광판이든 줄어드는 숫자를 바라보며 외친다. 십, 구, 팔…… 삼, 이, 일, 땡. 새해가 밝은 것이다.

시간은 태초부터 존재해왔겠지만, 시간을 생각하고 시간을 나누고 시간에 개념을 부여한 것은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 23시 59초와 2024년 1월 1일 0시 1초의 차이는 인간에게나 유효한 것이다. 전자는 작년이고 후자는 올해다. 며칠 전까지 전자는 올해였고 후자는 내년이었다. 그 나눴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숫자를 세고, 새해 인사를 나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공동 수상을 기념하는 연말 시상식을 무료로 보다가도 그 순간이 오면 자세를 고쳐 바로 앉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군. 내일부터는 나도…….

작심삼일이라 하였으니, 각자 다졌던 새해 각오가 하나둘 흐트러지기 시작할 오늘이다. 나 또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자 했던 다짐을, 미약한 감기 기운을 벌미 삼아 폐기 처분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는 우울과 상념에 젖었는데, 다가오는 내일이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생애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필히 오고야 만다는 사실에 이상한 위로를 받았다.

그것은 아마도 나현정 그림책 '하루살이가 만난 내일'을 읽었기 때문이라. 주인공은 하루살이다. 하루살이는 이렇처럼 하루만 살 수 있는데(연구에 따르면 하루살이는 성충으로 사는 기간이 하루나 이틀일 뿐이지 애벌레 시절부터 샌다면 통상 1년 넘는 수명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다), 하루살이가 어떻게 내일을 만난단 말인가.

하루살이가 내일을 만날 수 없다는 전제는 분명해 모순이 있다.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내일은 우리의 관념에서만 존재할 뿐, 내일이 우리 앞에 당도하는 순간 내일은 바로 오늘이 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일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만 만남은 영원히 유예되고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이다. 당시는 지금 어느 날을 살고 있는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을 만나고자 하는 하루살이의 비행은 의미심장하다. 녀석은 온갖 색이 반짝거리는 바깥세상을 처음 보고, 이러한 아름다움을 하루밖에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내일을 만날 수 있다면, 이 반짝거림을 보다 오래 볼 수 있을 텐데, 아쉬워하면서.

그림책답게 하루살이의 하루는 화사한 색깔로 이어진다. 새와 새색, 꽃과 씨앗이 제각기 내일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 내일은 아주 높은 곳에나 아주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 한다. 노인은 어둠 속에 있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하고 금붕어는 좁은 곳에 갇혀 내일을 생

각할 수 없다고 한다. 물결과 소녀, 애벌레와 새하얀 눈, 늑대와 고양이 모두 내일을 말한다. 마치 그들이 내일을 만난 것처럼, 내일이 무엇이라 말할 수 있다는 듯이. 하루살이는 내일을 만날 수 있을까? 하루살이의 긴 여정은 아무래도 하루만큼은 아닌 것 같다. 책의 첫장에는 꽃이 만개하는데, 말미에 이르러서는 하이얀 눈이 소복히 쌓인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하루살이는 이미 내일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기도 아니기도 하겠지만 확실한 건 하루살이는 하루보다 더 살았고, 그 시간에 내일 대신 다른 존재를 만나며 내일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루살이는 춤을 춘다. 모두에게 각자의 내일이 있다고 말하며.

2024년이 되었다. 책에서 늑대가 “내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순간이 중요해”라고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 순간을 구성하기 위해 지나쳐온 어제와 이 순간으로서 다시 만들어질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순간도 온전히 내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일 중에 새해 첫날에 우리는 보다 더 한 의미를 매긴다. 거기에 내일에 내일을 보며 한 해를 보낸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어떤 모양일까? 어떤 내일을 그리며 오늘을 살아야 할까? 하루살이는 마지막 춤에 앞서 '모두의 내일'을 그린다. 그 장면에 우리가 만나야 할 내일의 힌트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

<시인>

### 의료칼럼



**박태영**  
조선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교수

충치로 흔히 불리는 치아우식증은 치면 세균막에서 생산된 산에 의해 치아 표면이 용해돼 치아 구조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이는 치아 구조가 파괴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초기 치아우식증과 진행된 치아우식증으로 구분된다. 초기의 경우 치아를 깎아 내지 않을 수 있으나 진행된 경우 치료를 위해 손상된 치아를 깎아내야하므로 초기에 발견해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은 물론 올바른 진단을 통해 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치아우식증의 진단은 치과의사가 치아를 살펴보거나 방사선 사진을 이용해서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충치의 경우 전통적인 진단 방법만을 사용하면 진단이 모호해지거나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 소실 정도를 측정해 치아우식증을 진단하는 기

## 충치 진단기구 'QLF'를 아시나요?

술인 정량광 형광기술(QLF,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이 등장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QLF는 방사선이 아니고 인체에 무해한 가시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하다.

초기 우식의 경우 방사선 사진에서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QLF를 이용하면 식별이 가능하고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까지 하여 수치로 우식의 정도를 표현해주는 것이 QLF 기술이다.

촬영을 해보면 진행된 우식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식 부위가 붉게 보이게 된다. 붉은색 부위가 진행된 충치이다. 이렇게 촬영한 후 우식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해 우식 깊이와 진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병원마다 우식에 대한 진단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른 부분을 이런 객관적 수치를 통해 검사 결과를 제시해 줌으로써 편차의 줄일 수 있고 진단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량광 형광기술법은 특히 치아우식증뿐 아니라 진단하기 어려운 치아균열증까지 초기에 진단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치아에 금이 가는 치아균열증은 시린 이를 유발하고 증상이 가법다고 방치할 경우 치아 파절이나 치수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아 균열은 절기고 딱딱한 음식을 즐겨 먹거나 이갈이가 있는 경우, 또는 이

미 치료받은 치아에서 주로 발생한다. 초기 치아 균열은 통증이 없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발견해도 대치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씹을 때 짜릿한 증상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이 보통 인지를 하게 되는데, 육안이나 방사선 사진으로는 확실하게 어떤 치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진단이 되지 않는다면 치료를 들어가기 어렵게져서 지켜보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깊어질 수 있고 세균이 침투해 치수염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치아 뿌리 밖까지 염증이 번지거나 뿌리 끝까지 금이 진행되는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균열 치아의 경우 균열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자연치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방법 외에 정량광 형광기술을 활용한 진단 방법이 활용된다.

이 기술은 2018년 8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2021년 6월부터는 5-12세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하며 치아에 가시광선을 쬐 반사되는 빛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의료진이나 환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최신 기술, 최신 기기의 개발이 치료와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편향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2009년 한 누리꾼이 가수 타블로의 스탠포드대학 졸업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 졸업자 명단을 조사해보니 없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그 뒤 타블로의 학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시다'의 약칭)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회원이 모여들어 타블로를 공격했다. 이에 타블로 본인과 지인, 심지어 스탠포드대학까지 나서서 타블로의 학교 졸업 증거를 내보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증거를 내놓아도 소용이 없었다. 카페 회원들은 '조작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목살했다. 타블로는 오래 고통을 당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특히 어떤 사안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 내가 억측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확증편향에 빠져든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억측과 확증편향은 대화를 중단시킨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과 육체에 깊은 상흔을 남긴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 "아니긴 뭐가 아니라"란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라고요'라고 상대의 말을 끊지 말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남아있는데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대화까지 지 않게 해야 한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해와 억울함에 갇혀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 社說

## 전남 바이오 첨단특화단지 여건 충분하다

전남도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단지 조성 공모에 들어갔는데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바이오에는 정부가 반도체·차전자·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7대 분야의 하나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신청서를 받아 상반기 중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지원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R&D에 대한 세액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것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면역치료제 등 바이오 첨단 산업과 첨단 신약 생태계 등 인프리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인 화순에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생물의약품연구센터 등이 조성된 상태

로 바이오 관련 첨단산업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화순에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이번 공모 대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전남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다.

화순군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해 내년부터 매년 1000명씩 국내외 바이오 인력 양성에 나서 계획이다. 여기에 메디컬센터인 화순 전담병원 등이 있어 백신특구를 중심으로 산·학·연·병을 연계한 백신·첨단 신약 및 면역치료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건이 충분한 만큼 지금부터는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꼼꼼한 준비가 중요하다.

전남도는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하고, 경쟁력을 갖추고도 2차전자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아 비판받은 아픔이 있다. 바이오는 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핵심 분야다. 디테일하고 철저한 준비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길 바란다.

## 5·18 피해 범위 확대…보상기준 마련해야

8년 만에 이뤄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에 2000건 가까운 사례가 접수됐다. 기대 이상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인데 모두가 수긍하는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 범위 확대에 따른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번 8차 피해보상 신청은 기존 5·18 관련 사망, 행불자, 상이지, 질병·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수배·연행자에 더해 성폭력 피해자, 해직·학사징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했는데 지난 2일 마감일까지 성폭력 피해자 25명, 해직자 175명, 학사징계자 182명이 신청했다. 또 재분류 329명, 사망자 1명, 행방불명자 14명, 상이지 290명도 추가로 접수했다.

대상을 확대한 만큼 신청자도 몰렸는데 신청자 수는 1차(1990년) 2693명, 2차(1993년) 278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7차에 걸쳐 보상이 확정된 수의 절반

에 가까운 인원이 이번에 신청한 것으로 5·18 관련 보상의 근거가 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온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꾸렸고, 광주시도 이달부터 보상공금 지급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정해지지 않은데다 보상지원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추천한 10명 중 단 2명만 선정되면서 편파심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알만하다. 광주시와 행안부는 무엇보다도 피해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과 심사로 편파 선정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아마도 정부가 올해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은 혁신적인 인구 증가 대책일 것이다.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져 고착되면서 국가 미래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해 0.7명, 올해는 0.6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독신, 아이 없는 부부가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CNN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 국가의 새로운 적(敵)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는 우리나라 인구 급감 속도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 3분의

일어줄 정도로, 일정한 소득 미만 신혼부부에게 최대 5억 원을 1%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이런 정책으로는 급전직하하고 있는 출산율에 제동을 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양육·의료·입시 등 각 분야에서의 비정상적인 고비용 구조가 정부 정책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공개·투기세력 근절 등을 통한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하, 질 좋고 안정적 인 공공주택의 공급, 공교육의 역할 강화 및 사교육 규제, 양극화

### 햇발질과 무능력

해소를 위한 부유층증세·블로소득 환수, 의료계·교육계 등의 기득권 철폐

를 통한 비용 저감, 사회 전반의 과도한 경쟁 지양을 위한 수도권 내 기업·대학의 지방 분산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도 압축 경제성장을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달려온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출산율 제고 역시 대안망일 것이다. 지난 16년간 380조 원을 쏟아부었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부의 햇발질과 무능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개탄스럽다.

/유현성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張必洙</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경영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 국 220-054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 고

## 억울함을 남기는 억측



**박빈영**  
공감커뮤니케이션 대표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아이가 엄마의 말을 자르고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말이 끊어지기가 무섭게 목소리를 키워 대꾸한다. "아니긴 뭐가 아니라"  
사춘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일찌감치 '아니긴 뭐가 아니라'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드라마나 대중가요의 가사에 그 말이 흔하 나오기 때문이다.  
"아니긴 뭐가 아니라'로 끝내버리는 대화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할 말을 끝까지 못한 사람은 억울함에 잠들 못 이를 만큼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한다.

마약 투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씨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이선균씨는 두달 여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와 사건 관련자들의 지난 행적을 모르는 우리는 사건의 진상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두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을까? 소속사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억측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함을 느낀다. 불공정한 대우에는 부당한 비난도 포함된다. 부당한 비난은 오해, 억측에서 비롯한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려하는데 정보가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참이라고 믿어붙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것이 억측이다.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려는 유혹에 넘어가면 억측에 빠지기 쉽다. 인간 사고의 약점이다.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은 사람들이 논리적 추론 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로 확증편향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 자신의 소망에 맞춰 관찰과 경험을 편향적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사실 가운데 어떤 것은 주목하고 어떤 것은 무시하거나 다른 사실을 들어 반박하면서 자신의 편향에 따라 결론을 내려 버린다. 흔한 말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거봐 내 말이 맞지'라고 우기기 쉬우 존재다. 우리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한다. 합리적 사고를 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도 확증